

모즈 지역

동아시아를 향한 고대 왕권의 위신



모즈 지역은 사카이 시내의 동서남북으로 약 4km 범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걸쳐 이 일대에는 100기가 넘는 고분이 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으로 그 절반이 유실되었고 현재는 44기의 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분묘인 다투쿠천황릉 고분(국내 제1위)과 리추천황릉 고분(국내 제3위)을 비롯한 거대 전방후원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토옹 및 금동제 장신구, 철제 마구와 무기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들 출토품으로부터는 한반도와 중국의 영향이 보이며 당시 일본이 동아시아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급의 권력의 상징 닛토쿠천황릉 고분



분구의 길이가 486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전방후원분입니다.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에는 양쪽으로 돌출부(츠클리다시)가 있고 삼중으로 된 해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고분으로 주위에는 배층으로 보이는 10기 이상의 고분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석관과 갑옷, 투구 등이 발견되었고 그때 그려진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전해지는 다투쿠천황릉 고분의 모습

옛날 고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구의 후원부 정상에는 커다란 돌이 보이고 분구는 이중으로 된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떨습니까?

닛토쿠천황릉 고분 그림(교호 연간(享保年間)) (사카이시립 중앙도서관 소장)



문화재 보존의 상징 이타스케 고분

닛토쿠천황릉 고분의 남동쪽에 있는 분구 길이 146m의 전방후원분입니다. 주위에는 배층으로 보이는 복수의 고분이 있었습니다.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5년에는 개발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처했으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보존 운동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1956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형의 토옹은 사카이시 문화재 보호의 상징 마크입니다.



이타스케 고분 출토 투구형 토옹



마고다유야마 고분

닛토쿠천황릉 고분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마고다유야마 고분

분구 길이가 65m의 가리비형 분으로 다투쿠천황릉 고분 중심선의 연장 선상에 축조되어 있습니다.



오사메즈카 고분

오사메즈카 고분

분구 길이가 59m의 가리비형 분으로 다투쿠천황릉 고분의 남동쪽 모퉁이에 근접해서 축조되었습니다. 매몰되어 있는 해자를 포장 색을 바꿔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분에서는 다투쿠천황릉 고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토옹이 출토되었습니다.

후루이치 지역

길게 이어져 온 왕의 계보



후루이치 지역은 오사카부의 동남부 후지이데라시에서 하비키노시에 걸쳐 동서남북으로 약 4km 범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에 형성된 이 거대한 고분군은 분구 길이 400m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의 오진천황릉 고분(국내 제2위)에서부터 소형 방분까지 원래 130기를 넘는 다양한 모양과 규모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45기 가운데 분구 길이 200m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7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분에 매장된 부장품에는 철제 무기와 병구가 두드러집니다. 그중에는 하나의 고분에서 200자루를 넘는 칼과 검이 출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금, 은을 사용한 화려한 제품도 있는데 곤다마루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금도금으로 된 금동제 말안장 금구(국보)가 대표적입니다.

우뚝 솟은 거대왕릉 오진천황릉 고분



분구 길이가 425m로 사카이의 다투쿠천황릉 고분에 이어 국내 2위 규모입니다. 고분의 성토 부피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거대 고분입니다. 분구는 삼단축성이며 잘록한 부분 양쪽으로 네모난 돌출부(츠클리다시)가 있으며 해자와 독으로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구 및 독 경사면 안팎으로는 후키이시(=좁석)를 깔았으며 커다란 원통 토옹이 2만 개 이상이나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토옹의 특징으로 보아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도 시대 관광지도

에도 시대에는 '가와지 명소 도화'라고 하여 지금의 관광지도와 같은 서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진천황릉 고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분 위에는 오진천황을 모시는 육각당이 있고 그곳에 이르는 벚나무 길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가와지 명소 도화'의 오진천황릉 고분 삽화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신사와 공원 츠도시로야마 고분

하비키노 구릉의 최북단에 있으며 고분군 중에서도 최초로 축조된 대형 전방후원분으로 분구 길이는 210m입니다. 분구의 주위는 이중으로 된 해자와 독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983년 발굴 조사에서 물새 모양의 토옹 3기가 나란히 발견되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코야마성'으로 불리었고, 현재는 봄에는 벚꽃과 유채꽃이 피는 공원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츠도시로야마 고분 출토 물새모양 토옹 (중요문화재)



수리(중요문화재)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썰매 같은 도구

고분의 축조기술 해설 미쓰즈카 고분

나카츠히메노미코토릉 고분의 남쪽에 동서로 나란히 위치하는 세 개의 방분의 총칭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아시마즈카 고분, 나카야마즈카 고분, 스케타야마 고분으로 불립니다. 아시마즈카 고분과 나카야마즈카 고분은 모두 분구의 한 변이 50m이고 스케타야마 고분은 한 변이 36m인 방분입니다. 3개 고분은 거의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마즈카 고분과 나카야마즈카 고분 사이에 있는 해자 발굴 조사에서는 크고 작은 목재 수리가 2개 발견되었습니다.